

지역 소식통

완주, 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완주군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완주군은 기업 제품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수혜기업·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1개 과제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은 연평균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수혜기업·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1개 과제로 신청하면 된다.

공급기업의 경우 전북지역 전체 업체가 참여 가능하지만 관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5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또 장애인 및 여성기업에 도 3점 가산점을 부여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새만금호 보름달물해파리

구제활동 준비 본격 착수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해파리 주의단계 경보발령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름달물해파리 구제활동에 참여할 어업단체 및 종사자를 모집한다.

이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외측 해역에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1일까지 김제시에 주소를 둔 연·근해 어업 단체 및 어업 종사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독성이 강하지는 않으나 번식력과 생명력이 강해 대량 발생 시, 어구 손상 등 어업 피해를 일으켜 어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주된 먹이인 동물성 플랑크톤을 찾아 이동하는데, 수온이 높아져 플랑크톤이 증가하는 시기인 여름철에 주로 출몰한다.

전북특자치도지역 전 연안에 보름달물해파리 경계단계 특보가 발령되었던 지난해의 경우, 해파리 피해를 호소한 어민들이 해파리 대량 발생의 원인으로 새만금호 내측을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파리 출현 동향을 살피고자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동향을 살필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역 난제 해결 앞장

정 시장, 부서 간 협업 통해 풀어내... 시민 기대감 증가

정성주 김제시장이 민선8기 들어 수 십년 간 묵혀있던 난제사업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가며 시민들의 난제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증가시키고 있다.

정 시장은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 시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난제사업 해결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수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난제사업 관계부서로부터 이야기를 청취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과 대안

점은 물론 미비점을 보고받고 공유, 해결방안을 위해 사업을 처음부터 뒤 돌아 보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분석해 찾아가고 있다.

시는 해결방안을 찾기 못해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을 난제사업으로 정하고 따로 관리해 오고 있다.

정 시장은 10여년 간 방치됐던 동진강 휴게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서예문화전시관·농약전통체험관, 황산 군사시설, 20여년 간 방치된 김제온천(스파랜드), 18년간 흉물로 방치된 노인임대주택 등 다양한 난제사업의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

치고 있다.

실제 수 십년 동안 방치돼 왔던 옛 동진강 휴게소는 다음 달 중 '지평선 새마루'라는 이름의 스마트 복합센터로 리모델링해 오픈할 예정이다.

동진강 휴게소는 지난 1992년 민간업자가 토지 20년 무상사용 후 시에 건축물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주유소와 휴게·편의시설을 운영하다가 지난 2012년 사용기간 만료로 시에 귀속됐다.

동진강휴게소 부지는 시 귀속 이후 11년 동안 방치돼 왔다.

시는 방치돼 왔던 동진강 휴게소 7134㎡ 부지에 지상 2층으로 전체 건물 면적 1348㎡ 규모의 식당, 카페, 편의점, 농특산물 판매장, 유틸,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 산책로 등도 조성했다. 동진강 휴게소가 '지평선 새마루'라는 이름의 스마트 복합센터로 문을 열거됨에 따라 오랫동안 묵혀있던 난제사업 해결과 동시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11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가 착공에 들어가고, 특히, 50여년 동안 군사시설 통제구역으로 제한됐던 황산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시는 황산을 시민들이 휴식과 충전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성주 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난제사업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제 농민 풍년기원 영농발대식

200여명 참석 '성황'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8일, 한해 농사를 시작하기 앞서 농민들의 무사안녕과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2024 김제농민 풍년기원 영농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제농민회(회장 최재호)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영농발대식은 농업인교

육문화지원센터 야외행사장에서 정성주 김제시장, 이원택 국회의원,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과 전북특별자치도연맹 황양택 의장 등 내외빈과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영농발대식은 지역 농업인들이 한해 영농 시작을 알리며 영농 의식을

고취하는 대규모 행사로 1980년대부터 매년 전통과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풍물 공연과 길놀이 등 식전행사로 문을 열었고, 김제농민회 최재호 회장의 대회사, 내외빈의 격려사 및 축사 등 기념식과 풍년기원 고사식으로 농업인의 무사안녕과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장을 만들었다. 농민회는 농민기분별 제정,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3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3.75% 공제 받으세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연 2회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

도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납할인 기간의 5%로,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연납 신청납부 할 경우 선납 기간(4~12월)의 자동차세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며 연세액의 3.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시기별로 3월에는 연

세액의 3.75%, 6월에는 2.5%, 9월에는 1.25%로 시기별로 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욱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청 세정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탁세(www.wetax.go.kr) 및 지방세 ARS(142211)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납부 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4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사진=김제시청 제공)

김제시립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유치원 2개소 대상 세계 여러 나라 도서 읽고 문화 체험

김제시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4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다문화 인식개선을 상호문화교육의 매개체인 책을 통해 진행한다.

오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10주에 걸쳐 관내 유치원 2개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다문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나라 문화책 읽고 다(多)체험 전래놀이'를 주제로 삼았다.

세계 여러 나라를 배경으로 한 도서를 읽고, 각 나라들의 문화가 담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다문

화 사고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립도서관 5층 4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컬러풀 월드' 도서를 활용한 동화구연 후 미국 패들볼 만들기, '모자 쓰고 인사해요' 도서를 활용한 동화구연 후 몽골 말기이 만들기, '썬우 까우 이야기' 도서를 활용한 동화구연 후 전통 자개함 만들기 체험 등이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친환경농업 직불금 접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완주군이 2024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

지난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 중 사업기간(2023년 11월~2024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서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다. 농가당 한도는 0.1~5.0ha이고, 지급 단가는 유기농 기준 ha당 논은 70만원, 과수는 14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130만원이 지원된다.

무농약 기준 논은 50만원, 과수는 12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11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인증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인증서 및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군은 국비·도비 직불금 지원이 종료된 무농약 인증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해 자체 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올해 12월에 지급 예정이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대상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